

지역 소식통

고창, 초등돌봄교실 학생 464명 대상 제철과일 제공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8개 학교, 464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초등돌봄교실 과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등돌봄 간식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난해 중단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은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과일소비 촉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은 고창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1인당 150g 내외로 주 1회, 연간 30회 이상 제공하며, 사과, 방울토마토, 포도를 포함한 GAP인증(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을 받은 제철 과일을 딱기 좋은 크기로 잘라해 컵, 파우치 등으로 제공한다.

특히, 과일간식 원재료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과 위생설비, 저온유통 체계를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가정의 달 대비 건강 기능식품 지도·점검 실시

정읍시가 가정의 달에 수요가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

시는 5월 3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3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동시에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영업신고증 비치 및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첨단바이오 육성 전략 포럼 개최

## 정읍시,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기대감 UP

정읍시가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공모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췄다.

이날 포럼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지역 내 R&D 혁신기관장, 기업체 대표 등 70여명이



정읍시는 24일 신정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전북형 첨단바이오 창업생태계 육성전략'을 주제로 바이오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했다.

이 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류영배 센터장과 창업 투자사 크립톤 양경준 대표, 신약개발 기업 노보렉스 손우성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정읍시가 나아가야 할 바이오 산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연평균 7.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27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적극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산업 동향과 정부 기조에 맞춰 전북자치도는 전주-정읍-익산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신청서를 지난 2월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포럼이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기업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도록 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세계유산 고창고인돌유적 학술연구 업무협약

### 고창군-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고창군과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학술연구와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와 보존관리, 연구성과 활용·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국가 중요 사적이자 한반도의 유일한 선사시대 유네스코 세계유산(2000년 등재)이다. 고인돌 500여기가 한곳에 분포하고 있어 한반도 최대의 고인돌 군집을 이루며, 탁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이 한곳에 분포하고 있는 특수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고창 죽림리 고인돌 발굴조사 ▲항공 라이더(LiDAR) 탐사

를 통한 고지형 및 경관 분석 ▲고인돌 석재와 토양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채석장 산지 연구 등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요유산인 고창 고인돌에 대한 보존·관리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지로서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5월 1일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5월 1일 오전 8시부터 부안 백산성지 및 백산면 일원에서 제130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는 1894년 5월 1일(음력 3월 26일), 부안 백산에서 갑오농민들이 반백성을 살릴 수 있는 땅(可活萬民)이라는 강렬한 믿음을 바탕으로 돌, 낫, 창을 들고 반봉건·반외세와 제폭구민·보국안민의 가치를 대내외에 천명한 상징적인 사건으

로 평가되고 있다.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백산성지 기념탑에서의 헌화 행사를 시작으로 백산면민과 백산중·고등학교생이 주축이 되어 동학농민군 행군을 재연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백산대회를 상징하는 축창과 만장기 등을 들고 평교사거리 일원을 행진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 백산고등학교 강당에서는 권익

현 부안군수,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주용덕 천도교 교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장과 기념사업회, 군민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부안군립농악단의 '백산성 청룡이 나르샤' 공연을 시작으로 배의명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대회사, 부안군수의 환영사, 부안군의회 의장 등의 축사와 함께 백산고 학생들이 직접 격문과 사대명의, 12개조 군율을 낭독함으로써 백산대회의 백미를 장식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정읍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 시, 민주 정읍고창지역위원회와 주요 현안·국비 확보 방안 논의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경운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중점 국가 예산 건의 사업인 ▲말목장터 문화관광 조성 ▲기능성 패푸드산업 플랫폼 구축 ▲반려동물 R&D 사업화 지원 고도화 ▲수소충전소 구축 ▲내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12건(85억원)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의 사업으로 서남권 소외의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 등 4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시장은 "지자체별로 신청한 사업을 각 부처가 편성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 부처안에 우리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도유망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정읍에 기반을 잡고 연구개발과 사업을 수행해 신청중에 있는 국책연구소들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공모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동진화 회복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고창갯벌 환경 피해조사 건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4일 제 30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 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고창 심원 하점마을은 유네스코에서 보전 가치를 인정받은 청정갯벌을 보유한 곳으로 연간 최대 2만톤, 평균 1만2,000톤 내외의 바지락을 연중 생산하는 전국 최대 산지이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 건설로 조류 변화가 일어나 지속적인 갯벌의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바지락 양식어장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새만금 담수화 추진에 따른 제한적인 해수유입이 수질 오염을 야

기해, 2017년부터 새만금에서 자란 우수한 바지락 종패가 심원 바지락 어장에 공급이 중단되어 현재는 중국산 종패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90%에 이르렀다. 고창군의회는 전문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연구센터와 어민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겨울철에는 예년과 달리 꺾이 쌓이지 않아 작년 가을에 뿌린 3,590톤의 중국산 종패 중 2,346톤인 65.4%가 유실되어 44억 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현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새만금의 생태계 복원과 지역 군민의 생계 문제를 위해 고창군의회와 군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